2026년 4월 24일 | Global Equity

# United Rental.(URI.US)

## 연간 실적 전망 상향, 성수기로 진입합니다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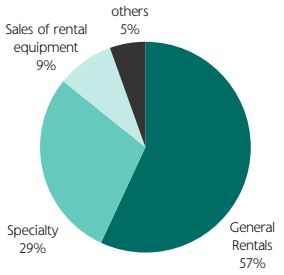
| | |
|---|---|
| TP(컨센서스) | 979.90 USD |
| CP(4.23) | 986.78 USD |

**Key Data**

| | |
|---|---|
| 국가 | UNITED STATES |
| 상장거래소 | New York |
| 산업 분류 | 산업재 |
| 세부 분류 | Rental & Leasing |
| 홈페이지 | www.unitedrentals.com |
| 시가총액(십억USD) | 62.06 |
| 시가총액(조원) | 91.93 |
| 52주최고/최저(USD) | 1,021.47/588.35 |
| 주요주주 지분율(%) | |
| VANGUARD GROUP | 11.82 |
| BLACKROCK | 8.00 |

| 주가상승률 | 1M | 6M | 12M |
|---|---|---|---|
| 절대 | 34.8 | 7.9 | 52.4 |
| 상대 | 26.8 | 2.4 | 22.8 |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USD)

| 투자지표 | 2024 | 2025 | 2026F | 2027F |
|---|---|---|---|---|
| 매출 | 15,345 | 16,099 | 17,066 | 18,282 |
| 영업이익 | 4,065 | 3,973 | 4,366 | 4,819 |
| 순이익 | 2,754 | 2,717 | 2,836 | 3,166 |
| EPS | 43.17 | 42.06 | 46.01 | 52.53 |
| EPS(YOY, %) | 6.0 | (2.6) | 9.4 | 14.2 |
| ROE(%) | 30.7 | 28.4 | 29.1 | 30.2 |
| PER(배) | 23.3 | 26.6 | 17.5 | 15.3 |
| PBR(배) | 5.3 | 5.7 | 5.2 | 4.7 |
| DPS | 6.52 | 7.16 | 7.84 | 8.44 |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 미국 데이터센터 및 리쇼어링 수혜주

유나이티드 렌탈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미국의 데이터센터 및 리쇼어링 프로젝트 확대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업부가 양호한 성과를 달성했고, 연간 실적 전망을 상향했습니다. 유나이티드 렌탈의 성장 동력은 데이터센터와 리쇼어링 등입니다. 비주거용 건설, 인프라, 전력, 데이터센터, 산업 제조 등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강한 수요와 성수기 진입을 근거로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했습니다.

### FY 1Q26 실적: 전 부문 호실적

유나이티드 렌탈의 FY 1Q26 실적은 매출액 40억 달러(YoY +7.2%, QoQ -5.3%), EBITDA 18억 달러(YoY +5.3%, QoQ -7.5%), EPS 9.71 달러(YoY +9.5%, QoQ -12.4%)다. 각각 Factset 컨센서스를 3%, 4.7%, 8.5% 상회했다. 핵심 지표인 Fleet Productivity는 개선됐다. 보유 장비 대비 렌탈 매출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Fleet productivity 개선은 장비 확충뿐 아니라 보유 장비의 렌탈 매출 효율도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평균 Fleet Size는 전년 대비 5.7% 증가했고, Productivity는 전년보다 2.3% 향상됐다.

건설 시장에선 인프라와 비주거용 수요 전반이 좋았다. 산업 시장에선 전력, 광업 등이 양호했는데, 전력 시장에서 두 자릿수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신규 프로젝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늘어나는 분야로 헬스케어, 제조업, 인프라 등을 꼽았다. 로컬 마켓은 성장보다는 안정화 국면을 시사했다. 석유화학 시장은 본격적인 회복 국면은 아니라고 했다. 규모상 유의미하진 않지만 2분기엔 월드컵 관련 프로젝트의 주요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FY 2026 연간 가이던스 상향

유나이티드 렌탈은 견조한 수요와 성수기 진입을 반영해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했다. 매출액 172억 달러(YoY +6.5%), EBITDA 78억 달러(YoY +5.8%)를 제시했다. 이전 가이던스 대비 0.6% 높고, 컨센서스를 0.5%, 0.9% 상회한다. 중고 제품 판매 가이던스는 유지했는데, 이를 제외한 매출 성장률은 7% 수준이다. 지난 분기 예상보다 사업 진행이 더 잘되고 있다고 CEO는 강조했다.

자본지출 전망도 46억 달러로 상향했다. 이전 제시한 수치보다 2.2% 늘렸다. 수요가 좋기 때문에 가능한 의사결정이다. 영업현금흐름 전망은 58억 달러로 이전 발표한 가이던스 대비 1.8% 확대됐지만 잉여현금흐름 전망은 유지했다. 자본지출이 늘어날 것을 반영한 것이다. 비용 관리를 강조하면서 성수기인 2~3분기에도 비용에 대해 신경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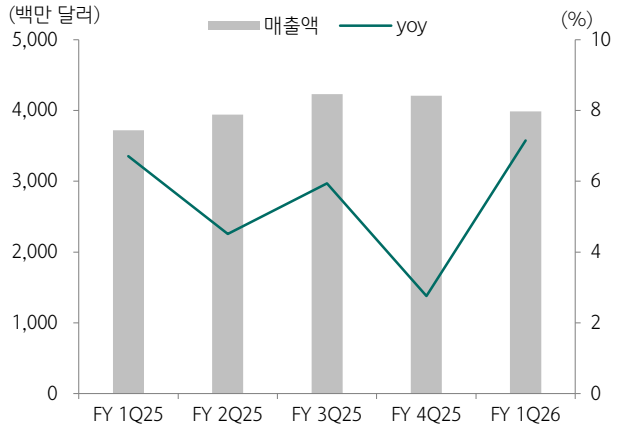
### 사업부별 매출

매출 항목별 구성은 장비 렌탈 34억 달러(YoY +8.7%, QoQ -4.5%), 렌탈 장비 판매 4억 달러(YoY -7.2%, QoQ -9.3%), 신규 장비 판매 8,400만 달러(YoY +20%, QoQ -22.2%), 그 외 제품 판매 4,000만 달러(YoY +11.1%, QoQ -7%), 서비스 및 기타 매출 9,200만 달러(YoY +1.1%, QoQ +2.2%) 등이다. 렌탈 장비 판매와 서비스 및 기타는 Factset 컨센서스를 8.8%, 1.8% 하회했지만 비중이 낮아 영향은 미미하다. 장비 렌탈, 신규 장비 판매, 그 외 제품 매출은 시장 전망보다 5.2%, 9.5%, 1.8% 견조했다.

장비 렌탈 매출 중 일반 장비 렌탈은 22억(YoY +6.2%, QoQ -4.5%), 특수 장비 렌탈은 12억 달러(YoY +13.8%, QoQ +0.6%) 등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다. 일반 장비 렌탈은 비주거용 건설 및 인프라 건설 시장 강세의 수혜를 받았다. 포트폴리오 전반의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고 CEO는 설명했다. 일반 장비 렌탈의 매출총이익률은 150bps 개선됐다. 감가상각,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배송비가 매출 대비 낮아진 덕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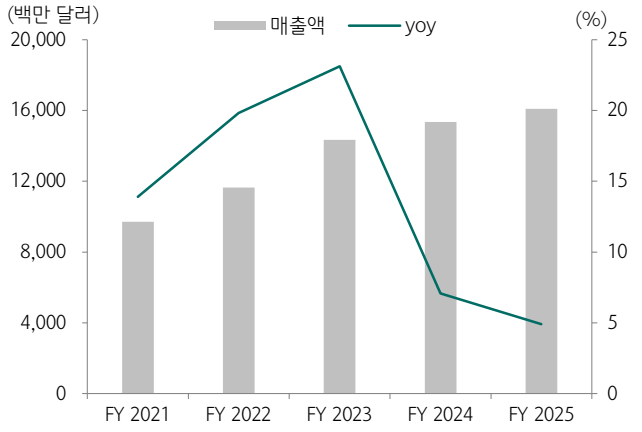
특수 장비 렌탈은 전력, 광업, 데이터센터, 헬스케어, 제조 산업, 인프라 등의 투자 수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리포지셔닝 비용 부담은 있지만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CFO는 설명했다. 특수 장비 렌탈 부문은 고성장 사업부지만 비용 구조상 이익 변동성이 다소 있다. 특수 장비 렌탈의 성장 덕분에 이번 분기 자본지출도 특수 장비 렌탈 부문에 집중했다.

**도표 1. 분기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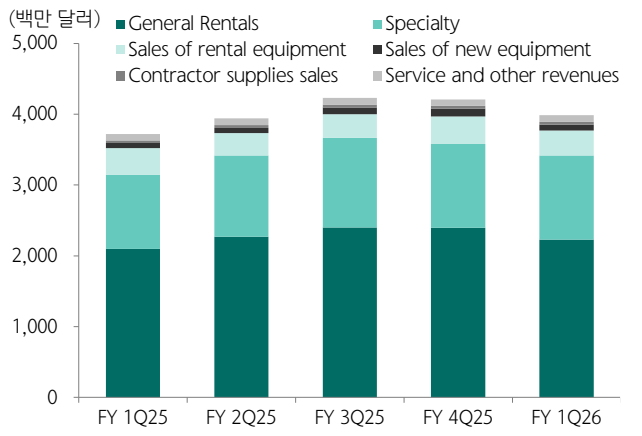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2. 연간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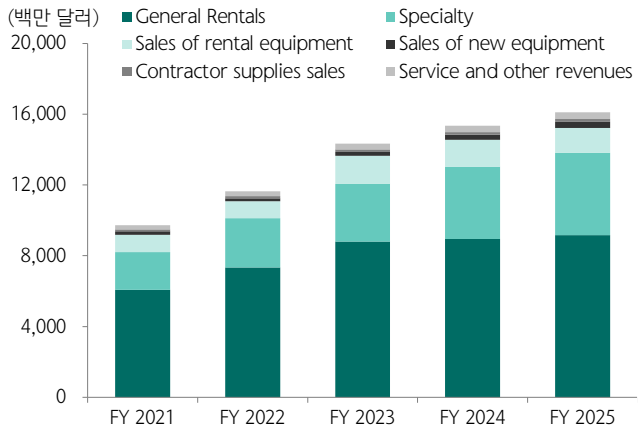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3. 분기 사업부별 매출 추이**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4. 연간 사업부별 매출 추이**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9. FY 1Q26 컨센서스 대비 사업부별 실적**

| | FY 1Q25 | FY 4Q25 | FY 1Q26 | YoY | QoQ | 컨센서스 | 차이 |
|---|---|---|---|---|---|---|---|
| **매출액** | 3,719 | 4,208 | 3,985 | 7.2 | -5.3 | 3,870 | 3.0 |
| Equipment rentals | 3,145 | 3,581 | 3,419 | 8.7 | -4.5 | 3,250 | 5.2 |
| General Rentals | 2,099 | 2,398 | 2,229 | 6.2 | -7.0 | - | - |
| Specialty | 1,046 | 1,183 | 1,190 | 13.8 | 0.6 | - | - |
| Sales of rental equipment | 377 | 386 | 350 | -7.2 | -9.3 | 384 | -8.8 |
| Sales of new equipment | 70 | 108 | 84 | 20.0 | -22.2 | 77 | 9.5 |
| Contractor supplies sales | 36 | 43 | 40 | 11.1 | -7.0 | 39 | 1.8 |
| Service and other revenues | 91 | 90 | 92 | 1.1 | 2.2 | 94 | -1.8 |
| **EBITDA** | 1,671 | 1,901 | 1,759 | 5.3 | -7.5 | 1,680 | 4.7 |
| **EPS** | 8.87 | 11.09 | 9.71 | 9.5 | -12.4 | 8.95 | 8.5 |

주: 백만 달러, 달러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10. FY 1Q26 컨센서스 대비 사업부별 실적**

| | FY 2025 | 이전 | FY 2026 | YoY | 업데이트 | 컨센서스 | 차이 |
|---|---|---|---|---|---|---|---|
| 매출액 | 16,099 | 17,050 | 17,150 | 6.5% | 0.6% | 17,067 | 0.5% |
| EBITDA | 7,328 | 7,700 | 7,750 | 5.8% | 0.6% | 7,679 | 0.9% |
| Capex | 4,149 | 4,500 | 4,600 | 10.9% | 2.2% | 3,911 | 17.6% |
| OCF | 5,190 | 5,700 | 5,800 | 11.8% | 1.8% | 5,942 | -2.4% |
| FCF | 2,181 | 2,300 | 2,300 | 5.5% | 0.0% | 2,208 | 4.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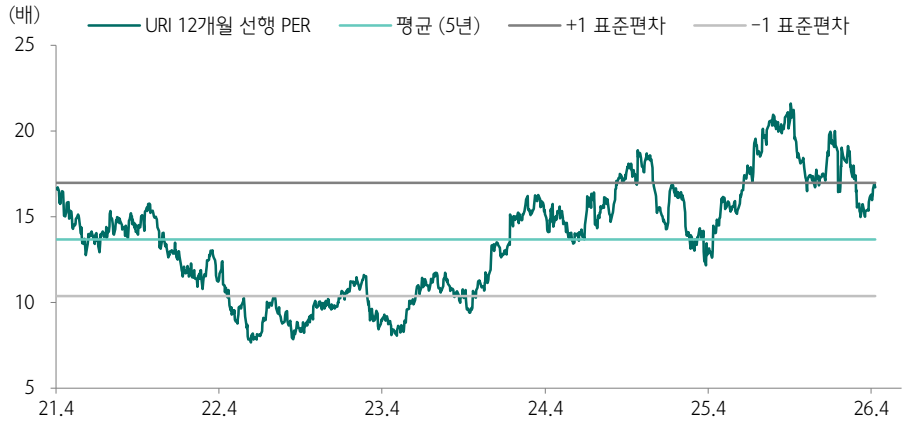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11. 분기 실적 및 Bloomberg 컨센서스**

| | FY 1Q25 | FY 2Q25 | FY 3Q25 | FY 4Q25 | FY 1Q26 | FY 2Q26(E) | FY 3Q26(E) |
|---|---|---|---|---|---|---|---|
| 매출액 | 3,719 | 3,943 | 4,229 | 4,208 | 3,985 | 4,187 | 4,512 |
| YoY | 6.7 | 4.5 | 5.9 | 2.8 | 7.2 | 6.18 | 6.7 |
| 영업이익 | 804 | 1,003 | 1,114 | 1,052 | 869 | 1,086 | 1,229 |
| YoY | -5.6 | -0.1 | -0.7 | -3.2 | 8.1 | 8.2 | 10.4 |
| 영업이익률 | 21.6 | 25.4 | 26.3 | 25.0 | 21.8 | 25.6 | 27.0 |
| EBITDA | 1,671 | 1,810 | 1,946 | 1,901 | 1,759 | 1,897 | 2,076 |
| YoY | 5.3 | 2.3 | 2.2 | 0.1 | 5.3 | 4.8 | 6.7 |
| 순이익 | 579 | 680 | 752 | 705 | - | 708 | 821 |
| YoY | -5.0 | -4.8 | -2.8 | -10.5 | - | 4.2 | 9.1 |
| FCF | 1,082 | 116 | -6 | 989 | 1,054 | 227 | 103 |
| YoY | 24.5 | -40.8 | - | 16.8 | -2.6 | 200.7 | -66.2 |
| PER | 19.2 | 23.0 | 30.8 | 26.1 | 22.8 | 16.9 | 16.4 |
| PBR | 4.6 | 5.4 | 6.8 | 5.7 | 5.1 | 5.4 | 5.3 |
| EV/EBITDA | 7.8 | 9.0 | 10.8 | 9.4 | 8.4 | 8.2 | 8.0 |
| ROE | 26.0 | 28.6 | 31.1 | 30.0 | 24.7 | 29.2 | 3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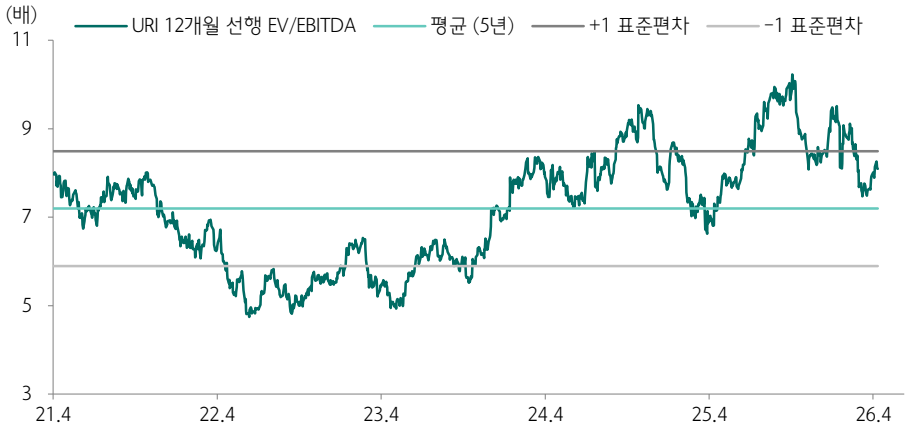
주: 백만 달러, %, %p, 달러, 배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11. PER 추이(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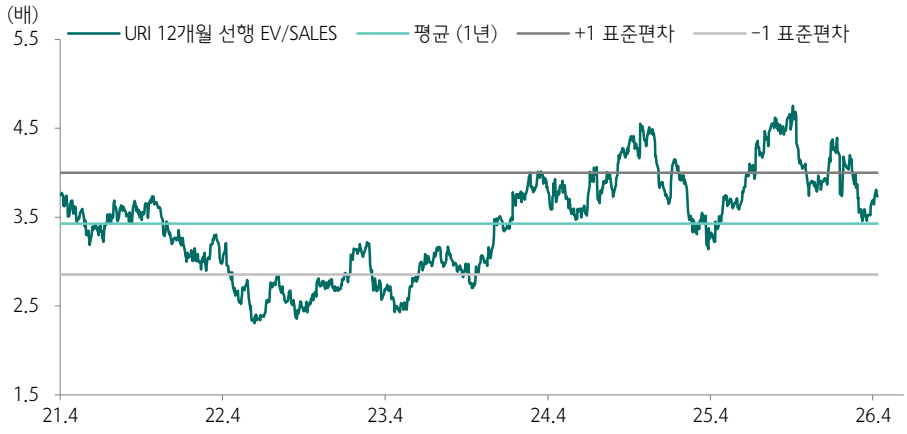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12. EV/EBITDA 추이(5년)**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13. EV/Sales 추이(5년)**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4월 24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2026년 4월 24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